大學章句 새겨보이

〔연재 제26회〕

權 五 達
편집위원

08-03. 此謂身不脩不可以齊其家 。
08-03. 차위신불수불가이제기가 。
이것을 일러 '자기 몸을 닦지 않으면 집안을 가지런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右傳之八章 。釋脩身齊家 。
우전지팔장 。석수신제가 。
이상은 전문의 여덟번째 장이다. 몸을 닦는 것과 집안 관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09-01. 所謂治國必先齊其家者, 其家不可教而能教人者, 無之 。故君子不出家而成教於國: 孝者, 所以事君也; 弟者, 所以事長也; 慈者, 所以使衆也 。
弟, 去聲。長, 上聲。◎脩身, 則家可教矣; 孝、弟、慈, 所以脩身而教於家者也; 然而國之所以事君、事長、使衆之道不外乎此。此所以家齊於上, 而教成於下也。

09-01. 소위치국필선제기가자, 기가불가교이능교인자, 무지 。고군자불출가이성교어국: 효자, 소이사군야; 제자, 소이사장야; 자자, 소이사중야 。
제, 거성。장, 상성。◎수신, 즉가가교의; 효、제、자, 소이수신이교어가자야; 연이국지소이사군、사장、사중지도불외호차。차소이가제어상, 이교성어하야。

이른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으면 반드시 먼저 자기 집안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은 자기 집안사람은 제대로 교화敎化시킬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잘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나라에 교화를 이룬다. 효도는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고, 공경은 윗사람을 섬기는 방법이며, 사랑은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이다.
제弟는 거성去聲이다. 장長은 상성上聲이다. ◎몸을 닦으면 집안을 교화시킬 수 있고, 효도와 공경과 사랑은 몸을 닦아서 집안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나라의 임금을 섬기거나 윗사람을 섬기거나 대중을 통솔하기 위한 방법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위로는 집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래로는 교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주】◎**교화敎化:**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09-02. 康誥曰 「如保赤子」, 心誠求之, 雖不中不遠矣。未有學養子而后嫁者也!
中, 去聲 。◎此引書而釋之, 又明立敎之本不假强爲, 在識其端而推廣之耳。

09-02. 강고왈 「여보적자」, 심성구지, 수부중불원의 。미유학양자이후가자야!
중, 거성 。◎차인서이석지, 우명입교지본불가강위, 재식기단이추광지이。

〈강고〉에 말하기를 「갓난 아이를 돌보듯이 하라」 하였으니,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면 비록 딱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멀지 않을 것이다.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운 다음에 시집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中은 거성去聲이다. ◎이것은 《서경》의 〈주서周書〉강고康誥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여 풀었으며, 또 교육의 근본을 세우는 것이 거짓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단을 알고 나서 유추하여 넓혀가는 데 있음을 밝힌 것이다.

09-03. 一家仁, 一國興仁; 一家讓, 一國興讓; 一人貪戾, 一國作亂; 其機如此 。此謂一言 뮨事, 一人定國 。
뮨, 音奮 。◎一人, 謂君也。機, 發動所由也 。뮨, 覆敗也 。此言敎成於國之效。

09-03. 일가인, 일국흥인; 일가양, 일국흥양; 일인탐여, 일국작란; 기기여차 。차위일언분사, 일인정국 。
분, 음분 。◎일인, 위군야 。기, 발동소유야 。분, 복패야。차언교성어국지효。

한 집안이 어질면 한 나라에 어진 기풍氣風이 일어나고, 한 집안이 양보하면 한 나라에 양보하는 기풍이 일어나며, 한 사람의 군왕이 탐욕에 빠져 어그러지면 한 나라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조짐兆朕이 이와 같다. 이것을 말하여 '한 마디 말이 일을 그르치게 하고,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분뮨은 음이 분奮이다. ◎일인一人은 임금을 말한다. 기機는 움직여 일어나는 시작점이다. 분뮨은 일이 뒤집어져 실패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교화가 나라에 가져다주는 효과를 말하였다.
【주】◎**기풍氣風:** 어떤 집단이나 지역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질. ◎**조짐兆朕:** 좋거나 나쁜 일이 일어날 낌새가 보이는 현상.

09-04. 堯、舜帥天下以仁, 而民從之; 桀、紂帥天下以暴, 而民從之; 其所令反其所好, 而民不從 。是故君子有諸己而後求諸人, 無諸己而後非諸人 。所藏乎身不恕, 而能喩諸人者, 未之有也 。
好, 去聲。◎此又承上文一人定國而言。有善於己, 然後可以責人之善; 無惡於己, 然後可以正人之惡。皆推己以及人, 所謂恕也。不如是, 則所令反其所好, 而民不從矣。喩, 曉也。

09-04. 요、순솔천하이인, 이민종지; 걸、주솔천하이포, 이민종지; 기소령반기소호, 이민부종 。시고군자유저기이후구저인, 무저기이후비저인 。소장호신불서, 이능유저인자, 미지유야 。
호, 거성。◎차우승상문일인정국이언。유선어기, 연후가이책인지선; 무악어기, 연후가이정인지악。개추기이급인, 소위서야。불여시, 즉소령반기소호, 이민부종의。유, 효야。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이 천하를 어진 정치로 통솔하자 백성은 그들을 따랐고, 걸왕 桀王과 주왕紂王이 천하를 포악한 정치로 통솔하자 백성은 그들을 따랐으나, 그들이 내린 명령이 자기의 좋아하는 것과 상반될 때에는 백성이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가 먼저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남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해야 하고, 자기가 먼저 나쁜 일을 아니한 다음에 남이 나쁜 일 한 것을 비난해야 한다. 자신에게 감추어져 있는 좋은 일을 서기恕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호好는 거성이다. ◎이것은 또 앞글의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글에 이어서 한 말이다. 자기에게 좋은 일 한 것이 있은 다음에 남이 좋은 일 한 것을 따질 수 있고, 자기에게 나쁜 일 한 것이 없도록 한 다음에 남이 나쁜 일 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자기가 먼저 해본 좋은 일을 모두 추천하여 남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을 이른바 서恕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명령을 내린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상반되므로 백성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유喩는 깨우친다는 뜻이다.
【원주】무저기이후비저인無諸己而後非諸人: 이 여덟 글자는 원래 빠진 글자였으나 원갑본元甲本·감본監本·방원본 元本·오각본吳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요堯:**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이름은 방훈放勛이다. 부계 씨족사회 후기에 부족의 영수였다. 처음에는 도陶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당唐으로 옮겨 살았기 때문에 도당씨陶唐氏라고 칭했는데 역사에는 당요唐堯라고 일컫는다. 일찍부터 계절을 관찰하는 부서를 설립하여 역법曆法을 정했다고 한다. 곤鯀에게 홍수를 다스리도록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사악四嶽(사방의 제후)에게 자문하여 순舜을 선택하고 계승할 사람으로 삼았다. 순의 행동과 맡긴 일을 수행하는 것을 3년 동안 관찰하다가 순에게 섭정할 것을 명하였다. 요가 붕하고 순이 제위를 계승했는데 역사는 이를 선양禪讓이라 한다. 순과 더불어 중국의 유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왕으로 받드는 성군聖君이다. 아버지는 제곡 고신高辛이고 조부는 교극⅔極이며 증조부는 현효玄 이고 고조부가 황제黃帝이다. ◎**순舜:** 중국 고대 전설 속에 나오는 제왕이다. 요姚가 성姓이고 다른 하나는 규っ이며, 유우씨有虞氏라고 부른다. 이름을 중화重華라 하며, 역사에는 우순虞舜이라 칭한다. 원시사회 후기에 부락연맹의 수령이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악四嶽이 천거해서 요堯가 순에게 섭정을 명했으며, 팔원八元(고신씨高辛氏에게 재주를 가진 아들 여덟)과 팔개八愷(고양씨高陽氏에게 재주를 가진 아들 여덟)를 천거했다고 한다. 사방을 순행巡行하였고, 흉악한 곤鯀(도올 컴)、공공共工(궁기窮奇)、환두驩兜(혼돈渾沌)、삼묘三苗(도철)를 제거하였다. 당요唐堯가 붕하자 제위帝位를 계승하고 현인을 선발하여 등용했으며, 우禹를 사공司空으로 삼아 홍수를 다스리게 했는데 마침내 우가 계승하는 사람이 되었다. 또 기棄、설契、고요皐陶、수垂、익益、백이伯夷、기夔、용龍 등에게 백성의 일을 이치대로 잘 다스리도록 명하니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다. 남방을 순행하다가 창오蒼梧의 들판에서 붕하여 구의산九疑山에 장사지냈으니 이곳을 영릉零陵이라 한다. 재위기간은 39년이다. 8대조가 황제이고 6대조가 전욱이다. 요임금과 함께 유가儒家에서 최고로 받드는 성군이다. ◎**걸桀:** 중국의 고대 전설적인 나라 하夏왕조의 마지막 왕이다. 이름은 이계履癸이고, 발發임금의 아들이다. 일설에는 발發의 동생이라 한다. 잔혹하고 포악한 정치를 하였으며, 유시씨有施氏 부족의 여자 말희뇽喜를 애첩으로 들여 사치와 음행을 일삼고, 무도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충신 관용봉關龍逢이 직간하자 그를 죽였다. 유잉有仍에서 제후를 회합하여 유민씨有緡氏족을 멸망시키자 제후가 모두 배반하였다. 상商족의 영수 탕湯이 위협이 되어 하대夏臺(지금의 하남성 우현禹縣 남쪽에 있던 감옥 이름)에 가두었다가 얼마 후 석방하였다. 탕의 덕망이 높아지자 제후가 모두 그에게로 귀순하니 마침내 탕은 군사를 거느리고 걸왕을 공격하였다. 걸왕은 명조鳴條(지금의 산서성 하현夏縣)의 전투에서 탕에게 패하고 그곳에서 죽었다. 일설에 걸왕은 남소南巢(지금의 안휘성 소현巢縣)로 추방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고 한다. 이로써 하나라의 시대가 끝나니 우禹임금에서부터 걸왕까지 군주가 모두 17명이다. 은殷나라 주왕紂王과 더불어 폭군으로 유명하다. ◎**주紂:** 중국의 고대 전설적인 나라 상商왕조(은殷왕조)의 제30대 마지막 왕이다. 이름은 신辛이고, 세칭 주왕紂王이라 한다. 수受 또는 제신帝辛으로도 불리고, 제을帝乙의 아들이다. 주紂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말재간이 뛰어났으며, 일처리가 신속하고 맨손으로 맹수와 싸울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 동이東夷를 평정하는 데 쓸데없이 국력을 소모하였다. 술과 음악과 여자를 좋아했으며, 특히 달기 己라는 여자를 총애하여 그 말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음탕하고 퇴폐에 빠져 점차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귀신을 우습게 알았으며, 주지육림酒池肉林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놀았다고 한다. 백성의 원망이 높아가고 배신하는 제후도 늘어나자 형벌을 강화시켜 신하를 잔혹하게 죽였다. 당시 서백창西伯昌(서백은 서방 제후의 장이란 뜻이고, 창은 이름이며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 문왕을 가리킴)、구후九侯、악후鄂侯를 삼공三公(천자를 보좌하여 병권을 관장하는 최고 관원)으로 삼았는데 구후의 아름다운 딸이 음탕한 짓을 싫어한다고 하여 죽이고, 구후를 죽여 포脯를 떠서 소금에 절이니 이를 만류하던 악후를 또 죽여서 포를 떴다. 이 소식을 들은 서백창이 혼자 탄식을 했는데 숭후호崇侯虎라는 제후가 고자질하여 서백을 유리 里라는 감옥 가두었다. 서백의 신하 굉요夭가 미녀와 진기한 보물, 준마 등을 주에게 바치자 서백을 사면하였다. 서백은 출옥하자 낙수洛水 서쪽의 땅을 바치며 포락형 烙刑(기름을 칠한 기둥 아래 불을 피워놓고, 죄인에게 기둥 위를 걷게 하여 떨어지면 불에 타죽게 하던 형벌)을 없애주기를 청원하였다. 주가 이를 윤허하고 서백에게 궁시부월弓矢斧鉞(활과 화살, 작은 도끼와 큰 도끼로 정벌과 전쟁을 뜻함)을 하사하여 주변 제후국을 정벌할↗